

2017 전국체전 폐회... '내년엔 전북'

폐회식서 대회기 인수 차기 개최지 홍보 등 성공적 체전준비 만전

전북도는 26일 충북도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2018 전국체전 대회기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폐회식 공식행사로 진행된 이번 대회기 인수 행사는 식전행사, 종합 시상, 폐회사에 이어 전국체육대회

기 인계·인수, 내년 차기 개최지역으로서 전북도를 알리는 제99회 전국체전 홍보동영상 상영(3분), 문화공연(7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중 특히 문화공연은 2018년 전라도 개도 천년을 맞아 "비상하는 전라천년(태하, 太虛)"이라는 주제로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단장 김수현) 25명이 공연을 펼쳐, 1만여명의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도는 한편 충북 전국체전 기간 중 주경기장에 토탈관광홍보(Tour- Pass)부스를 설치하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가 선수와 관람객에게 기념품 및 관광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국체전준비단(단장 고재현)은 체전기획팀 등 각 팀별로 충북체전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각 부분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특히 편수영, 스위시, 럭비 등 9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체전 운영 전반을 살폈다.

더불어 2018전국체전 D-365일에 맞추어 분청 현관에 카운트다운 홍보관을 설치하였고, 다음 달 수송·속박대책, 입·퇴장관리, 안전관리, 손님맞이 등 17개 분야 52개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전국체전준비상황보고회를 갖고,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다

집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도 개도 천년"을 맞이해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통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상을 정립하여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98회 전국체육대회는 내년 10월12일~10월18일 익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며, 이어 펼쳐지는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은 7,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국제종자박람회 퍼포먼스 26일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린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 행사에서 주요 내빈이 참여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 국제종자박람회 열려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 16개 기업에서 8개작목·237품종 전시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밑거름이 될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가 김제시(시장 이건식) 백산면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동안 개최된다.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중희 국회의원, 리승용 농촌진흥청장, 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종우 한국종자협회장과 류갑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장 및 이건식 김제시장 등 국내외

빈 7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씨앗, 내일을 품다(Seed For Our Future)"를 슬로건으로 해외바이어 및 국내종자산업 관계자들에게 우수 품종을 보여주고, 종자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

행사는장은 전체 10ha 부지로 노지전 시포 3ha, 산업교류관, 주제전시관, 정책홍보관 등으로 이루어졌다.

노지전시포에는 16개 기업에서 배

추, 무, 고추 등 8개 작목 237품종을 전시하였는데, 각 기업에서 새롭게 육성한 품종을 관람객에게 보여줌으로써 작목특성을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산업교류관에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일반기업, 종자 전후방 연관기업 등 32개 기업이 참여하여 우수 품종 및 기술을 산업관계자와 해외 바이어에게 알릴 수 있는 '기업브랜드 설명회'와 실용화재단, KOTRA, 세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종자박람회를 계기로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종자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산업형 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정호윤 도의원, 청소년시설 증사자 처우개선 대책 시급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전주시 제1선거구·사진)은 제33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청소년시설 증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복지시설 폭력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26일 정호윤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청소년쉼터'는 24년 근무자가 3만3,285천원을 받아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분야 인건비 가이드라인 24년 관급급 5만3,220천원의 62.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1년 근무자가 3만3,556천원을 받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65% 수준에 불과해 타 시도 및 도내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교 하더라도 매우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 조치결과에 따르면 ▲직원이 종사자 폭력 ▲거주인간 폭력, 성추행 ▲종교참여 강요 ▲거주인 통장에서 매달 49천원을 현금 명목으로 교회에 보낸 ▲인권교육 이수시간 부족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법률 위반사태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법안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협약 해지시유에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방통위, 방문진 이사 전격 선임

MBC 정상화 급물살

공석이었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 두 자리에 보결 이사 2명이 전격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보결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환 상시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보결이사로 선임했다. 두 사람의 임기는 내년 8월12일까지다.

앞서 과거 여당 몫 추천 이사인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차례로 자리에서 물러나 방문진 이사진에는 두 자리 공석이 생겼다. 방문진 이사진은 방문진법 제6조에 따라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한다.유·김 이사는 과거 여권 추천 몫 이사다. 이날 이사진 공석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채워지면서 방문진 이사진 구도는 과거 여권이 다수인 6대3에서 현 여권이 다수인 4대5로 역전됐다.

이에 따라 과거 야권 방문진 이사 3인이 24일 방문진 사무국에 제출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이 안건

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된다. 고 이사장 불신임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고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이사직만 수행하게 된다. 고 이사장은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경 MBC 사장 해임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53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조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 "2011년 이후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으로 승승장구하며 MBC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장본인인 김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방문진이 고 이사장 불신임, 김 사장 해임 절차를 완료하면 노조도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의 방문진 보결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방통위를 향한 방문했다. 이에 따라 오전에 예정됐던 과방위의 KBS·EBS 국정감사는 파행을 빚었다.

한국당은 방통위가 방문진 보결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과 국회 본회의 일정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

혁신도시 공공기관·지역주민 '대화합'

1000여명 교류행사 참석... 혁신도시 시즌2 개막 축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이 화합하는 장이 마련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주민이 화합하고 '혁신도시 시즌2' 개막을 축하하는 'JUMP 2gether!' 화합 교류행사가 열렸다.

이날 교류행사에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행사는 한국농수산대학 사물놀이와 타악 퍼포먼스의 식전행사, 개막식, 혁

신도시 시즌2 선포식, 화합한마당으로 진행됐다.

또 이은미와 잠윤정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열렸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인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화학적 결합을 이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도시가 어느 지역보다 빨리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정착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ijmaeil.com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한중(1939. 3. 25.생 2015. 10. 24.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허윤범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 사건번호: 2017년1068 상속한정승인 판사 허윤범
- ▶ 피상속인: 망 이한중(1939. 3. 25. 생 2015. 10. 24. 사망)
- ▶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35 (동남동 2가)
- ▶ 공고인: 이성근
- ▶ 한정승인수리일: 2017. 9. 25.
- ▶ 공고기간: 2017. 10. 27. ~ 2017. 12. 26.
- ▶ 연락처: (청구인 이성근의 주소)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306 101동 302호 (중화산동2가, 광진햇빛찬아파트) 010-4156-0477

군산시 공고 제2017 - 1789호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재열람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7-801호(2017.4.28)로 열람공고한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일부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사항: 군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사항)
2. 열람기간: 공고 개시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군산시청 도시계획과(3층)
4. 수정사항: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5. 관계도서: 계개생략(열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27. 군 산 시 장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